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 주년

50 년간의 성공을 회고하다

제 1 장:

1962 년 – 1969 년: El Primero(엘 프리메로), 전설의 탄생

하나의 오브제는 결코 우연히 탄생하지 않는다. 오브제란 한 시대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브제는 주어진 시대의 관습으로부터 탄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의 관습을 한 발 앞서 예고하기도 한다. 유행에 따라 만들어진 오브제는 그 배경이 된 시대가 종료되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를 앞선 오브제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살아남곤 한다. 엘 프리메로도 바로 그런 경우이다.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는 7 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69 년 1 월 10 일 출시되었다. 잠시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1960 년대 초, 시계공업 전반에 걸쳐 당시 설계되던 식의 수동식 와인딩 크로노그래프는 인기를 잃고 있었다. 고객들은 이제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걷는 등 일상 생활만 하면 와인딩이 되는 오토매틱 시계에 익숙해져서, 아침마다 크라운을 돌려주어야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계를 원하지 않았다. 현대성이란 효율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시계 태엽을 감는 행위는 이제 구식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현대성”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사용되어 오히려 그 의미가 사라졌지만, 1960 년대 초에는 밝은 미래와 자유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는 단어였다. 오브제들이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을 절약하게 해 주므로 인간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사상은 프로메테우스적인 인류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인류는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 속도의 주인, 그리고 이제 곧 우주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인류는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푸라스티에(Jean Fourastié)가 <영광의 30 년(Les Trente Glorieuses)>*이라 명명한 이 시기는 2 차 대전 종료와 함께 시작되어 1973 년 오일 쇼크와 함께 끝난다. 유럽은 견조한 경제 성장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이에 따라 구매력 상승과 대중적인 소비를 누리고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미래는 행복한 최첨단 기술의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술의 도래가 얼마나 양면성을 지닐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 여행을 하고, 자동차는 날아 다니고, 여성들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을 사용하고, 모든 이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미래관이었다. 이런 시대에 손으로 태엽을 감는 시계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시계는 황홀한 현대성을 대변했다.

1962 년 제니스에서는 공방 창립 100 주년을 기념하여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자는 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장에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없었으므로, 사상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자는 논의였다. 하지만 뛰어난 연구개발 노하우를 지닌 제니스는 기존의 칼리버에 추가 모듈을 장착하여 출시하는 손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엘 프리메로 제작자”들은 기존의 무브먼트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브먼트를 고안하고자 했다.

1966 년에서 1967 년 사이, 제니스의 경연진은 시간당 36,000 회 진동하는 고주파수 무브먼트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크로노미터 관측소의 경연대회를 위해 부품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제니스 크로노미터부에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연구하기로 했다. 고주파수는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위스 크로노미터 학회(Swiss Chronometry Society)를 비롯한 많은 크로노미터 학회에서 고주파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으므로, 시대 정신에 꼭 맞는 정책이었다. 제니스 공방은 한 시간에 36,000 회 진동하여 10 분의 1 초 단위 측정이 가능한, 사상 최초의 고주파수 초박형 및 일체형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를 창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니스는 엘 프리메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크로노그래프의 구조와 생산방식을 전체적으로 재고안함으로써, 생산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그 전에는 크로노그래프 조립 전에 와인딩 작업자가 여러 무브먼트 부품을 받아서 미세 조정을 했으므로, 워치메이커는 와인딩 작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작업방식이였다. 왜냐하면 당시 사용되던 금형에는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어서 이를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본 부품들을 받아서 조립을 하고, 줄로 갈아서 모든 기능을 미세하게 조정했지요. 결국은 크로노그래프 마감 공정을 담당했던 겁니다,"라고 당시 조립 책임자였던 Christian Jubin(크리스티앙 주뱅)은 말한다. 엘 프리메로는 처음부터 워치메이커들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금형의 정밀성을 향상하여 오차 범위를 최소로 줄임으로써, 대량 조립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품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엘 프리메로의 경우 부품을 받아서 조립만 하면 됐습니다,"라고 엘 프리메로 "생산자" 중 한 명은 말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였다.

그렇다면 제니스는 왜 고주파수 무브먼트를 개발했을까? "1960년대에는 모든 회사들이 고주파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최고 수준의 제품이여야만 했습니다,"라고 그 당시를 경험한 사람이 회고한다. 고주파수는 또한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한 시간에 36,000 회 진동, 즉 1 초에 10 회 진동하는 무브먼트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을 덜 받게 마련이다. 최고주파수 모델이므로 일부 부품의 조기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제니스는 이황화몰리브덴으로 특수 표면처리를 하였다. 이는 일부 기계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아직 시계공학에서는 사용된 적 없었던 혁신적인 방식이었다. 밸런스 휠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레버-휠 플랫폼 표면을 특수 코팅처리 함으로써 슬라이딩 마찰 계수를 향상시켜 주는 기술이었다.

엘 프리메로의 개발은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는데, 제니스-모바도, 세이코, 그리고 해밀턴-뷔렌, 브라이틀링, 호이어, 뒤부아 데프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크로노매틱 그룹 등 다수의 시계 회사들이 사상 최초의 오토매틱 와인딩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고자 경쟁하고 있었다. "제니스의 크로노그래프는 사상 최초로 출시되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스위스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겨우 몇 달로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들이 모두 거의 같은 해에 출시되었거든요,"라고 당시 마케팅 팀에 몸 담고 있던 마크 로에츨리버거(Marc Roethlisberger)는 말한다.

따라서 제니스는 자체 제작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최초로 출시한 공방이 되었다. 1969년 1월 10일, 르 로클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제니스는 시간당 36,000 회 진동하는(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엘 프리메로의 탄생을 알렸다. "제니스와 모바도, 1969년 1월 10일 세계 최초의 고주파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다"라고 언론의 헤드라인은 말한다. 이 무브먼트는 1960년대 말에 결성된, 몬디나 제니스 모바도(Mondia Zenith Movado)의 약자인 MZM 지주회사의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고주파수로 진동하는 엘 프리메로의 밸런스는 1 초를 10 분의 1로 나눌 수 있었으므로, 대형 초침이 10 분의 1 초 단위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들어 보자. 1969년 1월 10일자 지역 신문 <익스프레스(Express)>는 "르 로클에 자리한 제니스 주식회사의 시계제조 공장은 두 개의 초정밀 시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성과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기존 크로노그래프보다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 안에 장착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엘 프리메로는 "세계 최초의 고주파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라고 기사에 명시되었다. "여태까지 크로노그래프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단일 시계에 통합한 제조사는 없었다. 제니스와 모바도는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일반 크로노그래프보다 더 작은 공간 안에 날짜 표시까지 포함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 전체를 배치하는데 성공했다. 무브먼트 두께가 6.50m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이다." 제니스는 이러한 챌린지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 단순한 캘린더 기능만 있는 "일반" 버전과, 요일, 달, 문 페이지 기능을 추가한 버전 등 두 개의 칼리버를 처음부터 출시하였다.

그렇다면 왜 'El Primero(엘 프리메로)'라는 이름을 선택했을까? 제품 출시를 앞둔 그 전해 가을 신제품의 이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제니스의 경영진은 이미 르 로클의 공장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할까? 몇 번의 브레인스토밍 끝에 'El Primero(엘 프리메로)'라는 이름이



선택되었다. 스페인어로 '최초'라는 뜻을 지닌 엘 프리메로는 어감도 좋고 다이내믹한 인토네이션을 가졌으며 모든 언어로 발음이 쉽고 이해도 용이한 단어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계 이름이 엘 프리메로로 결정되었다.

오늘날 인류의 당면과제는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금 우리는 생존 모드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엘 프리메로가 출시되던 당시는 확장의 시대였다.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우주와 다른 행성을 정복하고자 했던 시대였다. 스탠리 큐브릭과 영화의 영감원으로 작용했던 1948 년작 소설 <보초(The Sentinel)>의 작가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가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한,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엘 프리메로 출시 1 년 전인 1968 년 개봉되었다. 바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최초의 초고주파수 초박형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탄생하였다. 엘 프리메로를 선택한 이들은 사람이 달에 가던 기술 진보의 시대를 살던 이들이었다. 1969 년 7 월 21 일, 사람들은 흑백 TV 를 통해 아폴로 11 호가 달에 착륙하고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의 표면에 첫 발을 딛는 것을 보았다. 몇 달 후인 1969 년 10 월, 달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의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는 기계공학이 지배하는 세계였지만, 10 분의 1 초 단위 측정은 전자공학이 지배하는 차세대를 예고하였다.

"세계의 주요 시장들이 점점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 이 놀라운 신체품은 스위스 시계산업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1969 년 1 월 10 일자 제니스에 대한 기사는 말한다. 1969 년 바젤 시계전시회에 엘 프리메로가 공개되었다. 크로노매틱 그룹의 칼리버 11 은 1969 년 3 월 3 일 언론에 소개되었고, 세이코는 1969 년 5 월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했지만, 그 어떤 제품도 대중에게 각인된 엘 프리메로의 명성을 추월할 수는 없었다. 엘 프리메로는 전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몇 안되는 무브먼트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 장 푸라스티에(Jean Fourastié) 가, <영광의 30 년 또는 1946 년에서 1975 년까지의 보이지 않는 혁명(Les Trente Glorieuses ou la révolution invisible de 1946 à 1975)>, 1979 년 파이아르 출간.